

오픈AI 쇼크에 기술주 급락... 레버리지 울고 인버스 웃었다

AI 모멘텀 의문 속 변동성 커져
미국발 악재에도 낙폭 제한 영향
KRX 반도체지수 0.38% 하락 그쳐
레버리지 'SOXL'은 11.21% 급락

오픈AI발 성장성 우려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상품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인버스 상품에는 자금이 몰리는 등 투자 방향도 빠르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반도체 지수는 제한적 조정에 그치며 '오픈AI 쇼크'를 반짝 이슈로 소화하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 KRX 반도체 지수는 1만 3033.63으로 보합했고, KRX 반도체 Top15 지수 역시 8836.26으로 0.06% 소폭 올랐다. 간밤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한되며 시장 충격이 일부 완충된 모습이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1.80%)·SK하이닉스(-0.54%) 역시 소폭 등·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는 간밤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실제로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5.86포인트(0.05%) 하락한 49141.9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9%, 나스닥지수는 0.90% 각각 내렸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하락의 중심에는 오픈AI가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가 신규 사용자와 매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향후 AI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성장

기대를 기반으로 이어져 온 AI 투자 서사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이 컸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1.59%)를 비롯해 브로드컴(-4.39%), AMD(-3.14%) 등이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오픈AI 인프라 관련 기업인 오라클(-4.05%)과 코어위브(-5.83%)는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간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하락 여파로 3배 레버리지 ETF인 S

OXL은 11.21% 급락한 반면, 같은 지수를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SOXS에는 국내 투자자 순매수가 몰리며 단기 수익(+11.21%)을 올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른바 '레버리지 울고 인버스 웃는' 장세가 연출된 셈이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들어 국내 투자자들은 SOXS를 약 1억 2145만달러 이상 순매수하며 하락 베팅을 확대했다. 상승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다만 AI 투자 열풍을 단순한 거품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상장 지분 투자 과열, 테마주 급등 등 닷컴버블과 유사한 징후를 지적하면서도 "버블 여부는 결국 사후에만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AI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과거 어떤 기술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성장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시선은 다시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29일, 애플이 30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설명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을 좌우

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조정을 보이며 버티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2시 45분 기준 KRX 반도체 지수는 약 12983선으로 0.38% 하락에 그쳤고, KRX 반도체 Top15 지수도 8803선으로 0.31% 내리는 데 머물렀다. 간밤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한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1%대 하락 마감한 점을 감안하면 장 초반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시게이트의 가이던스 상향에 따른 반도체주 시간의 반등과 일부 실적 서프라이즈가 하락 경직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가 이달 들어 30% 이상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구간"이라며 "오픈AI발 불확실성과 FOMC, 빅테크 실적 이벤트가 단기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회사채 잔액 감소... CP·단기사채 발행 급증

금감원, 지난달 기업 금융 조달실적
1월부터 석 달째 순상한 기조 지속

지난달 일반회사채 발행 실적은 감소한 반면 단기사채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실적은 19조5430억원으로 전월(18조9082억원) 대비 3.4%(6348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7조3152억원으로 전월(748조4481억원)보다 0.2%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지난달 말 기준 4490억원이 순상환됐고, 발행 실적은 4조7810



금융감독원 전경. /메트로DB

억원으로 전월(5조1137억원)보다 6.5%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석 달째 발행보다 상환이 많은 순상환 기조가 지속된 것이다.

반면, CP 발행금액은 46조7698억원으로 전월(37조8559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단기사채는 전월(121조7163억원)보다 26.3% 증가한 153조7040억원 규모

로 발행됐다. 일각에선 중동 사태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발행시장 위축세가 계속되고 불확실성을 우려한 발행사가 장기 회사채보다는 단기사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채는 13조4424억원으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3196억원으로 208.7% 증가했다.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402억원으로 전월(3415억원) 대비 28.9% 증가했다.

기업공개 실적은 2104억원(9건)으로 전월 2908억원(3건) 대비 건수는 6건 증가하고 금액은 27.6% 감소했다.

유상증자는 2298억원으로 전월 대비 353.3%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제이알리츠에 물린 ETF 편입액 372억

관리종목 지정돼 매매 정지 예정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국내에 상장된 9개 상장지수펀드(ETF)가 이 리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가 정지될 예정이어서 이들 ETF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를 편입하고 있는 국내 상장 ETF는 모두 9개로, 편입 금액은 약 372억 원에 달했다.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는 ETF는 'PLUS K리츠'로 3.67%였다. PLUS K리츠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 안되는 점을 고려하면 편입 금액은 약 4억원 수준이다.

편입 금액이 가장 큰 ETF는 'TIGER

R 리츠부동산인프라'로 239억원으로 집계됐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제이알글로벌리츠 편입 비중이 1.36%로, 이 ETF의 시총이 1조7513억원에 달해 편입 금액도 컸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의 편입 비중은 2.19%, 편입 금액은 128억원에 달했다.

'HK S&P 코리아로우볼'도 1% 제이알글로벌리츠를 담았고, 'TIGER 리츠 부동산인프라채권 KIS'도 비중이 0.97%였다.

이밖에 KODEX 최소변동성 ETF에서 비중은 0.13%, KODEX 코스피TR과 TIGER 코스피, 'DAISHIN 오피스 리츠플러스'에서 이 리츠의 비중은 각각 0.004%였다.

이들 ETF는 운용사의 운용 역량이 발휘되는 액티브ETF가 아닌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어서 제이알글로벌리츠를 편입했다. /신하은 기자

두나무, 기와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협력

하나금융-포스코인터와 업무협약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융·디지털 자산·산업간 융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이뤄진 협약식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비롯한 각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나무가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의 '기와(GIWA)체인'을 하나금융그룹의 외국환 네트워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해, 실제 자금 흐름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와체인 기반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구축 ▲글로벌 자금관리 및 지급결제 효율화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사업 기회 발굴 등 디지털 금융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우선, 기존에 활용했던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방식을 기와체인상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전환해 나가는 기술 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방대한 글로벌 무역 데이터를 기와체인 위에 안전하게 구현해,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발생하는 대규

모 자금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오 대표는 "기와체인의 기술력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온체인 금융환경을 구현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자산과 전통 산업, 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장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들과 중장기적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했다"며 "3사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성년자 주식계좌 급증... 1분기 272% ↑

신한투자, 미성년고객 계좌 분석

미성년자 주식투자가 모바일 비대면 계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자녀 계좌가 장기 자산관리와 분산 투자 교육의 출발점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3월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현황과 국내외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확한 계좌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간 미성년자 계좌 중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 비중은 58.4%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계좌의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이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체험을 넘어 자녀 명의 계좌가 중·장기 자산 관리와 금융 교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신한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국내 주식 중 미성년자 고객이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신하은 기자